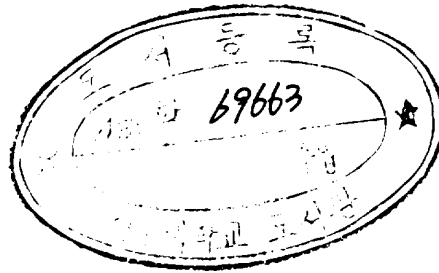


碩士學位請求論文

濟州道 中·高等學校 女學生의 政治
社會化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金 恒 元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韓 禎 浩

1993年 8月

濟州道 中·高等學校 女學生의 政治
社會化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金 恒 元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3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提出者 韓 禎 浩

韓禎浩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3年 7月 日

審査委員長 宋 成 大
審査委員 金 恒 元
審査委員 朴 龍 炯



<抄 錄>

濟州道 中·高等學校 女學生들의 政治
社會化에 관한 研究

韓 禎 浩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恒 元

本研究의 目的은 제주도 중·고등학생들의 정치태도를 시민의무감,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정치참여감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여, 정치태도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는지, 社會·經濟的背景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여학생 1,120명을 標集하여 이를 대상으로 시민의무감,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정치참여감의 영역으로 나누고 정치태도를 측정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한 결과를 要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년별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는 정치신뢰감은 중학생은 저학년, 고등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 지도자 및 공무원의 청렴결백에 대한 믿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참여감은 중학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정치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 거주지별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로는 정부나 정치지도자에 대

한 신뢰도는 시 지역보다 군 지역의 학생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참여감은 군 지역보다 시 지역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연령별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로서 정치신뢰감은 부모의 학력이 국졸이하인 학생에게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믿음이나 정치지도자 및 공무원이 청렴결백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참여감은 부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학생에게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학력별, 가정의 생활정도별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학급활동, 클럽활동, 교실 내에서의 의사결정에의 참여 등에 대한 교육적인 노력과 지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올바른 정치적 정향을 가질 수 있도록 민주적인 학급 분위기 조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길러 주기 위하여 注入式 위주의 授業에서 學生 中心의 授業 體系로 개선해 나아가야 하며, 또한 교사 자신도 민주적인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目 次

I. 序 論	1
1. 問題의 提起 및 目的	1
2. 研究의 制限點	3
II. 政治社會化와 政治態度	4
1. 政治社會化와 政治態度의 概念	4
2. 政治社會化와 政治態度	13
3. 學校와 政治社會化	17
III. 研究 方法	23
1. 調查道具	23
2. 研究對象 및 標集方法	23
3. 資料處理 및 分析方法	25
IV. 結果 및 論議	27
1. 領域別에 따른 政治態度	27
2. 背景變因別에 따른 政治態度	33
V. 要約 및 提言	43
1. 要 約	43
2. 提 言	45
參考文獻	47
英文抄錄	51
附 錄	54

表 目 次

〈표 1〉 質問紙의 問項 構成 內容	24
〈표 2〉 地域別 質問紙 實施 對象者 回收 現況	25
〈표 3〉 背景 變因別 標集 人員	26
〈표 4〉 市民義務感에 대한 全體 反應 結果	28
〈표 5〉 政治效能感에 대한 全體 反應 結果	29
〈표 6〉 政治信賴感에 대한 全體 反應 結果	30
〈표 7〉 政治參與感에 대한 全體 反應 結果	32
〈표 8〉 學年別에 따른 政治 態度의 차이	34
〈표 9〉 居住地別에 따른 政治 態度의 차이	36
〈표10〉 父母의 年齡別에 따른 政治 態度의 차이	37
〈표11〉 父母의 學力別에 따른 政治 態度의 차이	38
〈표12〉 父母의 職業別에 따른 政治 態度의 차이	40
〈표13〉 家庭의 生活 程度別에 따른 政治 態度의 차이	41

I. 序 論

1. 問題의 提起 및 目的

현재 한국 정치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는 민주적 정치 발전이라고 하겠다. 해방후 서구의 민주주의 제도가 직수입된 이래 한국은 거의 반세기 가 지났지만 민주주의 土着化는 많은 시련을 겪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가 지닌 근본적인 문제는 조선 시대의 專制君主政治와 일제의 強壓政治 아래서 형성된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 위에 갑자기 移植된 서구적 자유주의 思潮에 따르는 제도의 개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전통적인 社會構造 속에서 정상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슬한 시련과 갈등을 초래할 수 밖에 없었다.¹⁾ 즉 자생적으로 발전된 제도가 기보다는 타율적으로 받아들인 제도였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 토착화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던져 주고 있으며, 때로는 價値構造上的 혼란까지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 속에서 새로운 정치 문화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치 사회화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더구나 지금과 같이 민주적 정치 발전을 위한 국민적 열망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절실하다.

선진 조국을 내다보며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추구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치적 行爲定向이 민주적 정치 문화로 집약될 수 있도록 국민 개개인을 어릴 때부터 民主的 政治定向을 지니는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1) 威義英(1972), "政治意識과民主主義," 「社會科學論集」第5集(서울:延世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P.80.

정치 사회화 과정이 정치교육의 중요한 매개체 과정으로 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²⁾

정치 사회화 연구는 미국에서 1960년대 이후 활발하게 행하여졌고 우리 나라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연구가 행하여졌다.

정치 사회화 研究 結果를 종합하여 도오슨(R.E.Dawson)외 2인은 成人以前期の 정치 사회화를 ① 兒童前期(5-9세), ② 兒童後期(9-13세) 그리고 青年期(13-18세)로 구분하고 있다. 그의 구분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은 青年期에 해당되는데³⁾ 오늘날까지의 諸研究에 의하면 정치 사회화 과정의 가장 중요한 단계는 청년기로부터 성인에 이르는 기간이라고 看做되고 있다.⁴⁾

육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숙되어 가고 있는 중등학교 시절은 인간의 人格 完成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인간의 어느 때보다 감수성이 높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쉽고 빠르게 받아들여지게 되며, 일단 이 시기에 받아들인 것은 성년이 되어서까지도 상당 기간 지속하게 된다.⁵⁾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청소년기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한 개인의 정치적 定向이나 性向의 기본적인 틀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정치 사회화 과정을 중요시하며 청소년기의 정치 사회화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도 청소년기의 정치 사회화에 관한 연구가 많이 행해지긴 하였으

2) 韓興壽(1972), "民主政治體制의 土着化 教育," 社會科學論叢 第5輯 (서울: 延世大, 社會科學研究所), P. 21.

3) Richard E. Dawson and Others(1977), *Political Socialization* (N.Y:Little, Brawn and Co.) 鄭世九外(1984), 『도덕과, 국민윤리와 지도법』 (서울: 教育科學社), PP. 17-18에서 재인용.

4) 李克燦(1984), 「政治學」 (서울: 法文社), P. 239.

5) 劉鍾海(1973), "韓國 中高等學校 學生들의 社會化過程에 관한 研究," 省谷論叢 第4輯, P. 667.

나, 특히 제주도의 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本研究의 目的은 제주도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정치 태도를 시민의무감,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정치참여감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여, 정치 태도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는지, 또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 보려는 것이다. 여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은 남학생들에 비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기 때문이다.

이 研究의 意義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정치 태도의 발달 과정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치 태도의 발달에 학년,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밝혀, 정치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變因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정치 태도를 형성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셋째,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정치 태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2. 研究의 制限點

本研究는 다음과 같은 制限點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고등학생들의 정치 사회화를 조사하기 위해서 정치 태도 중에 정치신뢰, 정치참여, 시민의무감, 정치효능만을 선정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보다 광범위한 標集을 못하였고 제주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각 4개의 중·고등학교 1, 2, 3학년의 여학생에 국한하였다.

셋째, 배경 변인도 학년별, 학생 거주지별, 부모의 연령별, 부모의 직업별, 부모의 학력별, 가정의 생활 정도별로 국한시켰다.

II. 政治社會化와 政治態度

1. 政治社會化와 政治態도의 概念

1) 政治社會化的 概念

정치 사회화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정치 사회화에 관한 연구는 전혀 새로운 분야라 할 수 없다. 사회화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태도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근래에 와서 이루어진 것이나, 구체적인 연구가 늦었다고 해서 일찍부터 사회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사회적 존재로서 한 인간이 어린 시절부터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 요소를 흡수하고 社會的 目標나 規範을 습득하여 그 사회에 동일화되거나 적응하여 가는 모든 과정을 社會化(socialization)라 한다. 정치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한 인간은 정치 문화를 습득하게 되어 정치 체계를 익히게 되고 정치 문제에 대한 이해와 소신을 갖게 된다. 즉 정치 사회화란 개인이 政治的 定向과 行動 類型을 학습하는 성장 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政治意識이 변화되고 유지되는 과정으로서 이 과정의 기능을 통하여 개인들은 정치의식을 갖게 되고 정치 대상에 대한 태도도 형성하게 된다.⁶⁾

그러므로 정치 문화가 정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정치 사회화의 결과로 정치 문화가 형성 또는 변화하게 되어 정치 사회화와 정치 문화와의 상호 관련성을 알 수 있게 된다.

6)李大潤(1979), 「政治學 概念」(서울:學文社), P. 240.

이와 같이 정치 사회화는 전체로서 국가의 정치 생활에 관련되며 소위 정치 문화에 유도되는 과정⁷⁾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치 사회화의 최종 결과는 결국 政治體系나 그의 다양한 역할 및 역할 담당자에 대한 일련의 태도인 것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정치 사회화란 개인이 그의 특정한 정치적 정향을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되고 있다.⁸⁾ 즉 개인은 다양한 사회화 매체를 통하여 정치적으로 관련된 태도 성향이나 행위 유형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정치 사회화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태도에 매개되는 과정이며, 개인은 그들의 정치적 경향을 초기부터 점차적으로 배워간다는 것이다.⁹⁾

여러 학자들의 정치 사회화에 대한 定義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회화를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개인이 그 사회 속에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하여 각자에게만 특유한 개성과 정체 의식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 견지에서 볼 때는 각 사회가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면면히 이어가는 文化傳承의 과정인 것이다.¹⁰⁾

② 정치 사회화란 비록 공공연한 支持라기 보다는 긴밀한 支持이지만 현 정치 체계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정치 사회화가 필수적이다.¹¹⁾

③ 개인의 정치적 정향과 행위 유형을 학습하는 과정이다.¹²⁾

7) Gabriel A. Almond and James S. Coleman(1965), *Educa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New Jersey:Princeton Univ.Press), P. 27.

8) Richard E. Dawson, Kenneth Prewitt and S. Dawson(1977), *Political Socialization* (New York:Little Brown & Co.), P. 33.

9) H. H. Hyman(1959), *Political Socialization*, (Glencoe, Illionis: The Free Press,), P. 4.

10) 朴容憲(1983), “政治社會化와 政治文化,” 國民倫理學會編, 政治教育 (서울:螢雪 出版社), PP. 44-45.

11) 鄭世九(1974), “初.中學校學生들의 政治態도와 發達:政治信賴와 政治效能,” 「韓國教育」 (서울:韓國教育開發院), P. 24.

12) 李大潤(1982), 「新政治學 概論」 (서울:學文社), P. 24.

④ 정치 체계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개인이 그 사회의 體制 規準 및 정치적으로 관련된 태도를 습득하는 과정이다.¹³⁾

⑤ 현존 정치 체계에 의하여 채택되고 실행되는 規範, 態度, 行動의 점진적인 학습 과정이다.¹⁴⁾

⑥ 정치 문화를 획득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정치 사회화는 ㉠ 정치효능 ㉡ 정치신뢰 ㉢ 시민의무감 ㉣ 정치참여에의 기대 ㉤ 정치의식 ㉥ 타국 또는 세계에 대한 관념 등의 요소로 측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¹⁵⁾

⑦ 개인이 그의 특정한 政治的 定向-政治的 世界에 관한 知識, 感情 및 評價를 獲得하는 과정이다.¹⁶⁾

⑧ 정치 사회화란 명시적인 정치에 관련 있는 사회적 행동의 非政治的 學習과 퍼스널리티(Personality) 특성의 습관을 포함해서 인성의 모든 단계에서 形式的, 非形式的 그리고 意圖的, 無意圖的인 모든 정치 학습이다.¹⁷⁾

⑨ 정치 사회화는 전체로서 국가의 정치 생활에 관련되며 소위 정치 문화에 유도되는 과정이다.¹⁸⁾

⑩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정치 사회화란 개인이 그의 특정한 정치적

13) 金在泳(1982), 「政治社會化論」 (서울 大旺社), P.24.

14) Robert Sigel(1965), "Assumption about the Learning of Political Values," i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361, (sept.), P.2.

15) Byron G.Massialas(1969), "Citizenship and Political Socialization," *Encyclopedia Educational of Research*, P.3.

16) Richard E.Dawson, Kenneth Prewitt, and K.S.Dawson(1977), *Political Socialization*, (New York: Little Brown & Co.), P.33.

17) Fred I.Greenstein(1968), "Political Socialization,"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14, P.551.

18) Gabriel A. Almond and James S.Coleman(1965), op.cit.,P.27.

정향을 획득하는 과정이다.¹⁹⁾

이상의 개념 정의를 통해 볼 때, 정치 사회화는 대체로 정치 문화에 의 引入過程과 정치 문화를 전수하는 과정으로 파악하는 ‘文化傳授’라는 체계 수준과, 한 개인이 특수한 정치정향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政治的 自我形成’이라는 개인 수준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 사회화는 개인이 정치 체계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그 사회의 체계 기준 및 정치적으로 관련된 태도를 습득하는 과정²⁰⁾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 사회화는 결국 개인이 정치적 태도의 습득에 중점을 두면서도 체계 수준에 관련된다. 다시 말하면 정치 체계의 유지, 발전의 차원에서 개인의 태도 습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정치 사회화란 현존 정치 체계에 수용되어 실행되고 있는 規範, 態度, 行動의 점진적인 학습이다.²¹⁾ 정치 사회화란 개인에게 정치적 시야를 넓혀 줌으로써 하나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情報와 性向을 지니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 사회화란 한 나라의 정치 문화를 유지하고 변화시키기도 하며, 때로는 새롭게 형성하기도 한다. 정치 사회화는 하나의 정치 문화를 낡은 세대로부터 새로운 세대로 전달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정치 문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정치 사회화가 그 국민들이 지금까지 취해 왔던 방법과는 달리 정치를 새롭게 보고 경험하도록 유도할 때는 정치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된다. 이와 같이 정치 사회화는 정치 문화와의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19) Richard E. Dawson, Kenneth Prewitt and K.S. Dawson(1977), op.cit., P. 33.

20) 金在泳(1982), 前掲書, P. 24.

21) Robert Sigel(1965), op.cit., p. 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 사회화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정치 사회화를 정치 체계의 유지 발전, 변화 그리고 體系規準 및 정치적으로 관련된 태도를 개인의 정치 문화와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를 터득해 가는 과정이라고 규정한다.

2) 政治態度의 概念

세리프(Sheriff)와 캔트릴(Cantril)은 態度를 “어떤 한 사태에 대한 개체의 고유한 潛在的 反應傾向”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²²⁾

- ①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
- ② 특정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특수성
- ③ 항상 대상에 대해서 가치 판단이 따른다.
- ④ 태도는 학습에 의해서 형성되나 비교적 지속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 ⑤ 언어에 의해서 표현될 수 있다.

政治 態度란 心理學的, 社會學的 배경을 갖는 개념이어서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곤란하다. 따라서 정치 태도에 관한 연구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정치 태도를 조작하여 便利性을 전개하고 있다.

정치 태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이전에 모든 종류의 사회 및 정치적 행동은 태도를 통해서 증개된다²³⁾ 는 점에서 우리는 태도에 대한 개념과 일반적 특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마시알라스(Byron G. Massialas)는 정치 태도를 정치 문화의 한 樣

22) 培英社(1965), 『教育心理學辭典』, P. 350.

23) H. J. Eysenck(1954), *The Psychology of Politic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PP. 265-268.

態로 보고 있다. 즉 정치 문화는 정치적 구조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정치 질서에 대한 認知的 定向뿐만 아니라 개인의 태도와 느낌을 포함한다고 하였다.²⁴⁾

베스트(J.J.Best)는 意見, 態度, 價値를 구별하고 이들의 마음속 깊이 나 지속성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의견은 가장 피상적이고 일시적이며 태도는 그 중간에, 그리고 가치나 신념은 가장 깊은 곳에 있어 변동이 적다고 한다.²⁵⁾

에이젠크(H. J. Eysenck)는 태도에 대해서 “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습관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 태도와 습관은 둘다 중추신경계의 『학 습된』 변화이다. 두 개념은 先行 條件과 結果 行動과의 연결을 요구하는 假說的 構造物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²⁶⁾

토마스(W. I. Thomas) 등은 “사회에 있어서 개인이 당면하는 현실적·사회적 사태에 대하여 야기될 수 있는 가능한 반응적 행동을 결정하는 개인의 의식 과정”²⁷⁾ 이라 정의하는가 하면, 로키치(Milton Rokeach)는 태도를 “특수 대상(형태적, 사회적, 구체적, 추상적)에 초점을 둔 몇몇 신념의 지속적인 조직이며, 따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선호의 방식으로 응답하게 하는 것”²⁸⁾ 이라 하였다.

또한 알몬드(Gabriel A. Almond), 이스튼(David Easton) 등은 정치 대상체에 대한 심리적정향을 정치 문화라 하면서 정치 태도를 정치 문화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態度나 價値는 집단과

24) Byron G. Massialas(1969), op.cit., P.9.

25) James J. Best (1973), *Public Opinion*, the Dorsey Press, PP.5-11.

26) H. J. Eysenck(1954), op.cit., PP.265-268.

27) W. I. Thomas and Znanieck(1981), *The Polish Pleasant in the Europe and America* Vol.1., P.21. 朴容憲(1984), 社會的 行動과 學習 (서울: 教育出版社), P.300 에서 재인용.

28) Milton Rokeach (1968-1969), “The Role of Values in Public Opinion Research,” *Public Opinion Quarterly*, Vol.32, P.550.

그들의 한 부분을 이루는 협회적 결손에 의하여 형성되고 유지되고 그리고 변경하는 경향이 있다.

마시알라스(Byron G. Massialas)는 정치 문화의 개념을 정치적 구조와 대비되는 것으로써 정치 질서에 대한 認知的 定向뿐만 아니라 개인의 태도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그 영역을 알몬드(Gabriel A. Almond)와 같이 認知的 定向, 情意的 定向, 評價的 定向으로 구분하고 있다.²⁹⁾

구체적으로 무엇이 정치 태도인가를 하이만(Herbert H. Hyman)의 주장에 의하면 戰爭에 대한 態度, 全體主義에 대한 態度, 共產主義에 대한 態度, 政黨에 대한 態度, 國際問題에 대한 態度, 自由主義와 保守主義에 대한 態度 등을 포함하고 있다.³⁰⁾

그 밖에도 연구에 따라 政黨同一視, 政治義務感, 政治參與, 自民族 中心主義, 政治的 興味, 市民的 寬容 등 심리적, 사회적 배경을 갖는 무수한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상태에서 연구자들이 당면하는 困苦는 태도를 선정하는 기준의 모호성에서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캠벨(D. T. Campbell)이 정의한 것처럼 “정치 대상에 대한 개인의 고유한 潛在的 傾向”³¹⁾을 정치 태도라 하며, 정치 태도를 시민의무감, 정치효능감, 정치신뢰, 정치참여 등으로 나누어서 개념을 정의해 보기로 한다.

(1) 市民義務感(Citizen Duty)

시민의무란 국민이 그의 정부에 대해서 느끼는 의무감으로서 보통선

29) Byron G. Massialas(1969), "Citizenship and Political Socialization," *Encyclopedia Education Research*, P. 9.

30) Herbert H. Hyman(1965), *Political Socializ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P. 53-54.

31) D. T. Campbell(1950), "The Indirect Assessment of Social Attitude," *Psychological Bulletin*, No. 47, PP. 15-38.

거에서 投票를 통해서 표현되거나 법과 규칙에 복종함으로써 표현된다. 시민의 의무는 반대의 관점을 제시하는 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반대는 정치 문화의 일부분이라는 정도까지는 그것은 시민들이 그들의 나라에 대해 가지는 정치적 의무로 생각될 수 있다.³²⁾

이것을 정리하면, 시민 의무는 투표 의무, 법률이나 규칙에 대한 복종, 다른 견해에 대한 순종 등을 의미하고 있다.

(2) 政治效能(Political Efficacy)

정부의 기능을 이해하고, 그것은 변화될 수 있다고 느끼는 개인의 능력이다. 즉 효능 있는 사람은 자신이나 또는 다른 시민들이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³³⁾ 정치 효능은 정부나 정부 지도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념이다.

이스튼(David Easton)과 데니스(Jack Dennis)는 정치 효능이란 개념 속에 포함된 요소를 ① 개인의 직접적인 정치능력감 ② 개인의 요구에 정부가 응한다는 신념 ③ 정부의 이해 가능성에 대한 생각 ④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의 이용 가능성 ⑤ 정부에 대한 순종에 저항감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³⁴⁾

도스(Robert E. Dowse)와 휴즈(John A. Hughes)는 效能(efficacy) 또는 權能(competence)이란 어떤 사람들의, 그들의 환경이 개인 의미의 행동에 의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유순한 것이라는 느

32) Byron G. Massialas(1972), *Political Youth, Traditional School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P. 4.

33) Ibid., P. 4.

34) David Easton and Jack Dennis(1967), "The Child's Acquisition of Regime Norms: Political Effic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1., PP. 25-38.

낌이라고 하였다. 정치 효능감이란 체계는 요구에 반응하고 있다는 시민들에 의한 느낌이며, 정치 권능감은 정치적 투입과 산출이 시민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느낌이라고 하였다.³⁵⁾

(3) 政治信賴感(Political Trust)

정치 신뢰는 시민이 정부와 공무원들에 대해서 발전하는 信賴感이다. 만일 시민은 정부가 그들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정치 신뢰에 높은 점수를 준다. 따라서 정치 신뢰는 정치 지도자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페이제(Jeffery M. Paige)는 정치 신뢰란 주로 산출 국면에 대한 정치적 정향으로서 신뢰 점수가 높은 사람은 그가 정치적 投入 過程에 참여를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정부가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편에서 활동한다고 믿을 것이라 하였다.³⁶⁾ 따라서 정치 신뢰는 정부 활동 전반에 걸친 국민의 감정이나 믿음으로 이는 정치체도의 존속, 유지 및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4) 政治參與感 (Political Participation)

정치적 행동 중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政治 參與라 할 수 있다. 정치 참여는 政治的 討論이나 政治的 集會와 會合과 같은 정치적 활동에서 기대 또는 실제적인 개입이다.³⁷⁾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감정적 개입의 다른 정도로 그리고 정치 체계의 다른 수준에서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명백한 것 같다.

35) Robert E. Dowse and John A. Hughes(1972), *Political Sociology* (London: John Wiley Sons), P. 231.

36) Jeffery M. Paige(1971), "Political Orientation and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6, Oct., PP. 810-820.

37) Byron G. Massialas(1972), *op. cit.*, P. 4.

전통적인 민주주의 이론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행동에 있어서 개인에 의한 참여는 권리이며 시민의 의무로서 보와 왔다. 시민의 정치 참여는 민주정치 발전의 원동력으로 각 개인은 정치 참여를 통해서 시민의 지위를 획득하며 폭 넓은 사고를 지닌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2. 政治社會化와 政治態度

정치 사회화란 개인이 정치적 정향과 행위 유형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즉, 정치 사회화는 정치 문화가 변화되고 유지되는 과정에서 개인이 이를 학습을 통하여 체득함으로써 그 자신 정치 문화를 갖게 되고 정치 대상에 대한 태도도 형성하게 된다.³⁸⁾

정치 태도는 심리학적, 사회학적 배경을 갖는 概念으로 정치 태도에 관한 연구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정치 태도를 조작하여 연구의 便利性을 도모하고 있는데 정치 태도의 개념에 대해서는 정치 사회화나 정치 교육 등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알몬드(Gabriel A. Almond)나 마시알라스(Byron G. Massialas) 등은 정치 대상에 대한 심리적 정향을 정치 문화라 하면서 정치 태도를 정치 문화의 한 구성 要素로 보고 있다. 알몬드(Gabriel A. Almond)는 정치 문화를 정치 체계의 구성원들이 갖는 정치 태도와 정향의 유형이라 하면서 그 정향으로 認知的 定向, 情意的 定向, 評價的 定向 등을 들고 있다.³⁹⁾ 따라서 정치 태도는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정향이 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로키치(Milton Rokeach)는 이러한 태도보다 좀더 광범하고 추

38) 李大潤(1980), 「新政治學 概論」 (서울:學文社), P.24.

39) Gabriel A. Almond and G. Bingham Powell(1968), *Comparative Politics: A Development Approach* (Boston: Little, Brown and Co.), P.50.

상적인 것으로서 가치를 들고 價値는 어떤 특정의 대상이나 상황에 관련되지 않고 이상적인 행동 방식이나 終局的 目標에 관한 신념을 나타내는 것이라 한다.⁴⁰⁾ 그리고 개인의 가치는 신념이나 태도에 비하여 비교적 소수이며 行態란 이러한 태도의 기능이라고 본다.

비어(Samuel Beer)는 “사람은 공통된 인간성으로 어떤 感情的 衝動, 知的 能力, 道德的 定向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다소 변경시켜 가면서 교육과 모방을 통해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있다. 이것을 感情的 態度, 價値, 信念이라고 하며, 사회의 문화는 이것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정치 문화는 一般文化의 下位文化(sub - culture)로서 정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감정적 태도, 가치관, 신념 등의 정치 문화를 구성한다”고 말하고 있다.⁴¹⁾

버바(Sidney Verba)는 이와 비슷한 견해로 정치 문화란 어떤 사회 안에서 정치 행동이 야기되는 상황을 규정하는 經驗的 信念, 表現的 象徴, 價値의 體系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⁴²⁾

알몬드(Gabriel A. Almond)나 콜만(James S. Coleman)은 개발도상국 정치의 비교연구에서, 교육적 성취가 국민들의 정치 태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교육 외적인 어떤 변수도 국민들의 정치 태도에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못한다고 하였다.⁴³⁾

40) Milton Rokeach(1968), *Belief, Attitude and Values* (San Francisco: Jossey-Bass), P.124.

41) Samuel H. Beer(1958), “The Analysis of Political System,” *Pattern of Government*, ed. by Samuel H. Beer and Adam B. Ulam (New York: Random), P. 32.

42) Pye and Verba(eds)(1969), *Political Culture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517.

43) Gabriel A. Almond and Sidney Verba(1963), *The Civic Cultu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鄭世九(1985), “도덕과 국민윤리교육의 의미”, *社會와思想* 第6輯,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민윤리교육과, PP.233-234에서 재인용.

개인이 정치 태도를 습득하는 과정으로 파이(Lucian W. Pye)는 사회화 과정을 3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⁴⁴⁾ 첫째는 기본적인 사회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아동들이 사회의 특수한 문화에 유도되고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도록 기본적인 인격과 정치 태도 및 가치, 기능과 역할 관련성의 유형등 사회와 문화의 모든 면을 학습하게 되는 과정이다. 둘째는 정치 사회화 단계에서는 정치 문화에 사회화된다. 이 단계에서는 明示的인 知覺, 認識, 學習에 의하여 더욱 영향을 받는다. 셋째 단계는 정치적 충원 과정인데 여기서 개인은 수동적인 시민이 아닌 정치과정에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정치를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된다.

민주적인 정치체제에서 정치 사회화가 성공하려면 개인이 정치적 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정치 세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치 태도를 가진 인간이 民主的 意思 決定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정치 사회화를 통해서 일정한 政治的 定向이나 態度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하여 그것을 기준 삼아 행동하게 됨으로써, 많거나 적거나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리하여 정치 사회화의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개인은 하나의 政治的 自我를 획득하게 된다. 政治的 自我는 개인의 정치적 태도나, 감정이나, 신념이나, 인식의 총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정치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태도나 평가, 민족주의적 감정이나 애국심과 같은 정서적인 것, 정치에 관한 지식, 어떤 집단이나 파벌과의 일체화, 정치의 세계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등 여러 가지 요소로 되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정치적 정향이나 일련

44) Lucian W. Pye(1962), "Politics, Personality and Nation-Building," Yale University Press, PP. 44-48.

의 태도는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는 고정화되어, 이른바 정치 사회화의 과정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는 再社會化(resocialization)의 과정이 되는 것이다.

정치 사회화 과정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정치 태도 습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기간으로 看做되고 있다.⁴⁵⁾ 아동기의 정치 사회화는 정치 체계 이외의 다른 사회 체계를 통해서 잠재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潛在的인 政治社會化라 하며, 청소년기에는 명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明示的인 政治社會化라 한다. 아동기의 잠재적인 정치 사회화는 정치적 지식의 결여로 성인의 정치 태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치적 권위나 정치인을 이상화시킨다. 이에 대한 청소년기의 명시적인 정치 사회화는 정치적 지식의 폭이 넓어지고 정치적 자아의 형성으로 아동기의 정서적이며 이상화된 정치적 이미지에서 깨어나 더 현실적이며 이상적인 정치 태도를 갖게 된다.

아동기에는 기본적인 정치적 정향이 습득되지만 이 때의 경험은 청년기 및 성인기에도 지속된다. 정치 태도의 발달은 청소년 후기에 대체로 나타나는데 이 기간에는 청소년 전기에서 이미 설정된 정치적 유형을 내면화하고 결정시키며 개인의 정치적 자아를 아주 잘 설정하고 발전시킨다. 이러한 정치 태도의 발달은 추상적인 정치 현상을 파악하고 개념화하며 사고력 발달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이스튼(David Eston)에 의하면 아이들은 11세에서 12세 정도가 되면 기본적인 정치적 정향을 가지게 되고 14세쯤 되면 확고해지기 시작하여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서는 별로 실질적인 변화가 없이 확고한 정치적 정향을 갖고 政治機構

45) Herbert. H. Hyman(1965), *Political Socialization*, The Free Press, PP. 17-20.

나 構造 및 機能에 대하여 세련된 견해를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⁴⁶⁾

대체적으로 모든 정치 태도의 기본적인 것은 국민학교 때부터의 학습의 누적적인 효과가 고등학교 시기에 이미 정점에 도달한 시기로 정치 태도는 固着化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정치교육인 정치 사회화는 정치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정치 사회화는 바람직한 정치 태도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學校와 政治社會化

개인이 차츰 성장하여 가정 환경을 벗어나 外界로 나가면 정치 사회화되는 다른 집단이나 제도에 직면하게 된다. 그 중 가장 많은 경험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학교라는 2차적 매체는 흔히 가정 환경 하에서 확립된 태도나 행위 유형을 지지하거나 혹은 새로운 정치적 정향을 형성시키기도 한다. 즉 이곳에서 정치적 再社會化가 이루어진다.⁴⁷⁾

학교는 어린이에게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기술을 제공해 주지만 또한 사회의 성원에 타당한 文化的 諸規準을 습득케 한다. 그들은 학교에 들어가면 새로운 셈법이나 문법 등을 배우면서 권위에 복종하는 예절도 배운다. 도슨(Richard E. Dawson)과 프레윌(Kenneth Prewitt)은 정치 사회화에 있어서 학교의 영향을 둘로 나누어 ① 公式的 敎科課程, 儀式 生活, 敎師를 중심한 學級 生活, ② 敎室의 公式 活動 이외의 학교생활 부분으로서 社會的 雰圍氣, 政治的 青年 組織, 特別活動 등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46) David Easton(1966), *The Role Elementary School in Political Socialization*, McGraw-Hill, P.258.

47) Langton(1969), *Political Socialization*, (NewYork: Oxford Univ.Press), P.84.

1) 公式的 教室에서의 政治社會化

현대 사회에 있어서 체계적인 정치 학습은 교실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포괄적이며 의도적인 국민들의 정치관의 형성은 바로 이 학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실 내에서의 수업의 공식적 교과과정, 여러 가지 의식 생활, 그리고 교사들의 諸活動이 학생들의 정치 의식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여기서는 위의 사항들을 차례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敎科課程에 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한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 교과과정은 정치 사회화의 중요한 정치적 태도의 전달 통로이다. 즉, 이것은 교과과정에 특정의 정치적 내용을 포함해서 정치적 태도나 행태적 성향을 가르치려는 의도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과정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큰 문화 형식이며 그 내용은 사회에 있어서 참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화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의 많은 기초적 가치는 사회 내에서의 이러한 자료의 선택에 의하여 강화되고 보완될 수 있는 것이다.⁴⁸⁾

일반적으로 정치 지도자와 교육자들은 교과과정의 내용이 일반 대중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과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콜만(James S. Colman)의 주장에 의하면 한 사람의 선량한 시민이 어떻게 그의 국가의 정치 생활에 참여하는가를 강조하는 정치교육의 한 부분을 市民 訓練이라고 하며, 또 특정의 정치 체계를 합리화하고

48) C.A.Anderson S.Fisher(1967), "The Curriculum as an Instrument for Inculcating Attitudes and Values," Comparative Education Center, University of Chicago, Unpublished Manuscript, Dawson /Prewitt /Dawson, op.cit., P.140에서 재인용.

정당화하기 위하여 의도된 것을 政治的 敎化라고 구별하고 있다.⁴⁹⁾

이 양자 중에서 먼저 市民訓練에 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선량하고 견문이 넓은 시민을 양성할 필요성은 고대부터 항상 존재해 왔는데, 플라톤(Platon)은 그의 「공화국론」에서 희랍 시민의 교육은 반드시 음악과 체육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으며, 교육이 음악에 치중하면 너무나 유약해지고, 체육을 주로하면 난폭해지기 쉬우므로 이들을 결합함으로써 용감하면서도 온화한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이 선량한 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은 플라톤 이래 많은 논의가 행하여졌고 근대 교육의 발전에 따라 시민 훈련은 전 인구에 확대되어 사회 전체에 일반화하기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政治的 敎化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모든 학교 체제는 어떠한 형태이든 정치적 교화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과거에 존재했던 신화와 전설, 현재의 정책과 계획 그리고 미래의 목적과 희망 등이 선정되어 가르쳐지고 있으며, 意識的이든 無意識的이든 교과서와 다른 교수 자료들은 정치적인 諸事項들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한다. 그리고 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통한 정치적 교화의 목적과 그 수단은 각 나라마다 제각기 다른 形態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교실에서 어떤 특정한 가치를 교육시킨다고 하여 이 가치가 학생들에게 반드시 내면화되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학생들은 정치적 교화에서 완전히 전수된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어떠한 경우에는 이 방법이 전혀 효과가 없고 학생들에게 반감만 사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⁵⁰⁾

둘째로 儀式生活에 대해서 설명해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49) J.S.Coleman(1965), *Educational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P.226.

50) Dawson /Prewitt /Dawson(1977), op.cit., P.146.

가치는 학교에서의 의식 생활을 통하여 전수된다. 의식에 나타난 행동과 언어, 드러난 형상 등을 자기도 모르게 복종, 존경토록 하게 하며, 비록 그 언어나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더라도 우리 나라, 우리 국기 등에 대한 존경심은 국가적 충성심을 더욱 강화시켜 준다.

儀式生活이 국가적 충성심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 들 수 있다.

먼저 의식 생활은 非合理的·情緒的인 것으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절대적 감정에 속하므로 이러한 감정은 어릴 때부터 마음속 깊숙이 새겨져야 한다.

의식 생활이 애국심을 자아내게 하는 또 하나의 것으로서 의식에서의 집단행동을 들 수 있다. 집단적인 경험은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에 대하여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집단적 행동이란 가정이나 개인이 집단적으로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紐帶感을 갖게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생국에서 儀式教育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강화하고 있으나 교사의 과중한 업무에다가 학교 외의 환경, 특히 가정 등에서 이에 관한 뒷받침이 없는 한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리라 생각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학습의 세번째의 요소로서 教師의 役割을 들 수 있다. 사회에 있어서의 교사의 특수한 역할과 청소년의 성장기에 직접적으로 접촉함으로써 교사는 아동들의 政治的 定向에 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우선 교사는 아동에게 있어서 사회의 權威的 代辯者이다. 한 아동이 부모를 정치적 권위자로 생각하며 반응한다고 했을 때 그는 부모의 역할을 그 役割 受任者와 구별하지 않는다. 그는 부모를 영구적으로 똑같은 위치에 놓고 생각하므로, 결과적으로 부모는 개인적인 인물로 간

주된다. 그 반면에 교사들은 하나의 권위자로서 정치적인 권위자와 비슷하게 느껴진다. 아동은 교사에게 복종해야만 한다는 것을 배우며, 또한 교사가 가하는 賞罰은 그 교사에게 부여된 일정한 구속력에 따라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다음은 政治的 價値 傳授者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교사가 교실 내에서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根本的인 價値觀은 合意的 價値와 黨派的 價値 혹은 保守主義的 態度와 進歩主義的 態度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어느 특수한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되며, 교사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극히 정치적인데 반하여 또 다른 의미에서는 非政治的임이 요구된다. 이 두 입장을 조화해 나가는 것도 교사의 중요한 과제이다.

교사의 역할에 있어서 마지막 사항으로서 學級文化 傳授者로서의 교사를 보도록 한다. 교사들은 아동들에게 장래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행동 수준이 바로 학습 성장에 있음을 보여주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경쟁할 것을 가르쳐 준다. 그리하여 경쟁은 學級文化를 지배하는 요인으로 정치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 문화는 주로 교사의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2) 教室 외에서의 政治社會化

대부분의 학교들은 그들의 형식적인 교과 학습 이외에 학생들의 교과외 단체 활동이 많이 있다. 이러한 활동이 행해지는 범위와 방법들은 나라와 사회에 따라 각각 다르며 또한 문화적 유형에 따라 그 활동 양상이 다르다.

학교에 근거를 둔 활동에 대해서 보기로 한다. 학교와 구체적으로 연관된 활동들은 학생들이 정치 참여의 훈련을 받게하고 그것과 관련된

文化的 價値를 갖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課外活動은 민주적인 학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과외활동은 성인들의 자발적인 단체의 성원이 된다는 것은 성인들이 시민으로서의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외활동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課外活動에의 참여는 사회생활 과정에 대한 통찰과 인식을 갖게 해 준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으며 더 큰 정치체제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는 정치적 현상에 대해 더 긍정적인 정향을 갖게 될 것이다.⁵¹⁾ 이러한 과외활동들의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즉 학교의 스포츠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경쟁과 스포츠맨십의 가치를 가르쳐 주고 있다. 學生會는 일반적으로 자치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어른 세계에서 직면할 형식과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가르쳐 준다.⁵²⁾

51) D. Z. Iblatt(1965), "High School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Political Socialization," i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CCCLXI, September, P.23, Dawson/Prewitt /Dawson, op.cit., PP.161-162에서 재인용.

52) Dawson/Prewitt/Dawson(1977), op.cit., P.162.

Ⅲ. 研究方法

1. 調査道具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정치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變因으로 시민의무감,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정치참여감의 4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4문항씩 모두 16개 문항의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政治態度를 측정하였다.

問項의 제작은 정치사회화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기존의 문항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그 信賴도와 妥當度は I.S.R.(Institute for Social Reserch)에 공인된 것이다.⁵³⁾ 질문지의 문항 구성 내용을 보면 < 표 1 >과 같다.

2. 研究對象 및 標集方法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중·고등학교 각각 1개 학교를 標集 선정하여 중·고등학교 8개 학교 24학급 총 12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질문지 조사는 1992년 11월 2일부터 11월 13일 까지 각 학교의 사회과 교사의 협조로 실시되었다.

질문지의 조사 결과는 < 표 2 >에서 제시된 바와 같으며 회수된 수는 1145매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에서 全問項에 응답하지 않거나 성의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1120매였다. 따라서 최

53) John P. Robinson, et al(1968), "Measures of Political Attitudes," Ann Arbor, Survey Research Center, Institute for Research, the University of Michigan, PP.483-669.

〈표 1〉 質問紙의 問項 構成 內容

구 분	구 성 요 소	문항	문 항 내 용
정 치 태 도 의 환 경	기 초 조 사	1	학년별
		2	응답자의 거주지
	가 정 환 경	3	부모의 연령
		4	부모의 학력
		5	부모의 직업
		6	가정의 생활정도
정 치 태 도	시 민 의 무 감	7	투표에의 참여의무
		8	투표에의 참여의무
		9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
		10	정치인이나 공무원에 대한 의사표시
	정 치 효 능	11	정부활동에 대한 이해가능성
		12	정부활동에 대한 국민의 영향력 행사
		13	개인의 정치효능감
		14	정부활동에 대한 국민의 영향력 행사의 소유
	정 치 신 퇴	15	정부시정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
		16	정부지도자의 청렴결백에 대한 신뢰
		17	정부의 국민에 대한 관심
		18	국민복지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믿음
	정 치 참 여	19	정치문제에 대한 토론에의 참가정도
		20	정치문제에 대한 토론에의 참가정도
		21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치문제에의 관심 표명
		22	선호하는 정당·정치인으로 인한 의견충돌의 경험

〈표 2〉 地域別 質問紙 實施 對象者 回收 現況

지역	구분	질문지 배부수	회수된수	사 용 불가능한수	유효한수	회수율(%)
제주시	중학교	150	145	4	143	96.70
	고등학교	150	147	3	142	98.00
서귀포시	중학교	150	142	5	141	94.70
	고등학교	150	144	3	141	96.00
북제주군	중학교	150	142	2	140	94.70
	고등학교	150	140	3	136	93.30
남제주군	중학교	150	142	3	140	94.70
	고등학교	150	143	2	137	95.30
합계		1200	1145	25	1120	95.40

종적인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표집의 배경 변인별 수는 < 표 3 >에 제시된 바와 같다.

3. 資料處理 및 分析方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제주대학교 전자계산소에서 모두 전산 처리 되었으며, 자료의 분석은 본 질문지의 각 문항에 대해 시민의무감과 정치효능감은 '절대 찬성이다'에 1점, '찬성이다'에 2점,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에 3점, '반대이다'에 4점, '절대 반대이다'에 5점으로 점수화 하였고, 정치신뢰감과 정치참여감은 '대단히 많이'에 5점, '많이'에 4점, '조금'에 3점, '대단히 조금'에 2점, '전혀 안함'에 1점으로 점수화 하였다. 자료는 연구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統計的 方法과 節次에 따라 분석 처리하였다.

1) 영역별에 따른 정치 태도의 발달 과정을 밝히기 위하여 시민의무감,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정치참여감의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표 3〉 背景 變因別 標集 人員

배경원인	변 인 구 분		평 균	계
학 년 별	중 1 학년	183	16.3	1120
	중 2 학년	192	17.1	
	중 3 학년	189	16.9	
	고 1 학년	183	16.3	
	고 2 학년	181	16.1	
	고 3 학년	192	17.1	
응답자의 거주지별	제 주 시	322	28.8	1120
	서 귀 포 시	244	21.8	
	북 제 주 군	252	22.5	
	남 제 주 군	299	26.7	
부모의 연령별	30 대	77	6.9	1120
	40 대	746	66.6	
	50 대	279	24.9	
	60 대 이상	19	1.7	
부모의 학력별	국 졸 이하	143	12.8	1120
	중 졸	327	29.2	
	고 졸	537	47.9	
	대 졸 이상	111	9.9	
부모의 직업별	농림·수산업	511	45.6	1120
	광 공 업	122	10.9	
	상업·서비스업	247	22.1	
	회 사 원	63	5.6	
	공무원·교사	104	9.3	
	기 타	73	6.5	
가정의 생활정도별	상	34	3.0	1120
	중	1034	92.3	
	하	51	4.6	

구하고, 통계치가 유의 수준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을 하였다.

2)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정치 태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시민의무감,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정치참여감의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구하고, 통계치의 차이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유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을 하였다.

IV. 結果 및 論議

1. 領域別에 따른 政治態度

1) 市民義務感

제주도 중·고등학교 학생의 시민의무감에 대한 정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투표에의 참여 의무,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 정치인이나 공무원에 대한 의사표시를 묻는 4개의 문항을 제시한 결과, 각 문항에 대한 전체 반응 결과는 < 표 4 >와 같다.

투표 참여 의무에 대한 시민의 의무감을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선거에 질 것같이 생각될 때 투표할 필요가 없다.”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그 반응 결과는 ‘찬성’은 4%, ‘반대’에 79.9%의 반응 결과를 나타내어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에 관계없이 투표를 해야 한다는 태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한 분쯤은 투표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반응 결과가 ‘찬성’이 1.5%, ‘반대’가 94%를 나타내어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태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 정치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람들은 나라의 정치 형편을 잘 모르고 있어도 좋다.”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이 문항의 반응 결과에 대해서는 ‘찬성’이 2.0%, ‘반대’에 92.3%를 나타내어 국민 들은 나라의 정치 형편을 반드시 잘 알아야 한다는 높은 정치 태도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인이 공무원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치를

〈표 4〉 市民義務感에 대한全體反應結果

문항	N	M	SD	반응구분 (%)					
				절대찬성	찬성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반대	절대반대	계
7	1120	4.19	0.90	18 (1.6)	27 (2.4)	180 (16.1)	398 (35.5)	497 (44.4)	100
8	1120	4.57	0.66	2 (0.2)	14 (1.3)	51 (4.1)	325 (29.0)	728 (65.0)	100
9	1120	4.52	0.72	6 (0.5)	17 (1.5)	63 (5.6)	333 (29.7)	701 (62.6)	100
10	1120	4.27	0.89	16 (1.4)	43 (3.8)	105 (9.4)	419 (37.4)	537 (47.9)	100

말아 하는 정치인이나 나라 살림을 맡아 하는 공무원에게 자기의 의견을 제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에 대해서는 ‘찬성’이 5.2%, ‘반대’가 85.3%의 반응을 나타내어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2) 政治效能感

중·고등학생들의 정치효능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부 활동에 대한 이해 가능성, 정부 활동에 대한 국민의 영향력 행사, 개인의 정치효능감, 정부 활동에 대한 국민의 영향력 행사의 소유에 대한 효능을 묻는 4개의 문항을 제시한 결과, 각 문항의 반응 결과는 <표 5>와 같다.

정치나 정부 활동에 대한 이해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때때로 정치나 정부는 대단히 복잡해서 나 같은 학생이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겠다.”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그 반응 결과를 보면

〈표 5〉 政治效能感에 대한 全體 反應 結果

문항	N	M	SD	반 응 구 분 (%)					
				절대찬성	찬 성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반 대	절대반대	계
11	1120	3.44	1.10	44 (3.9)	215 (19.2)	260 (23.2)	412 (36.8)	189 (16.9)	100
12	1120	4.50	0.79	10 (0.9)	28 (2.5)	67 (6.0)	297 (26.5)	718 (64.1)	100
13	1120	3.87	0.95	15 (1.3)	85 (7.6)	237 (21.2)	475 (42.4)	308 (27.5)	100
14	1120	3.56	1.24	73 (6.5)	207 (18.5)	158 (14.1)	387 (34.6)	295 (26.3)	100

‘찬성’이 23.1%, ‘반대’가 53.7%,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가 23.2%를 보이고 있어 정부 활동에 대한 이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 활동에 대한 국민의 영향력을 행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일은 국민이 무엇이라 하든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것은 날씨와 같아서 국민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이 문항의 반응 결과는 ‘찬성’이 3.4%, ‘반대’가 90.6%로 정부 활동에 대한 국민의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 매우 높은 적극적인 정치효능감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의 정치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어른이 된 다음에 정부가 하는 일에 별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반응 결과는 ‘찬성’이 8.9%, ‘반대’가 69.9%로 개인의 정치효능감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 활동에 대한 국민의 영향력 행사의 소유에 대한 정치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서 “국민이 정부가 하는 일에 간섭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투표하는 일이다.”라고 문항을 제시한 반응 결과는 ‘찬성’이 25%, ‘반대’가 60.9%로 정부 활동에 대한 국민의 영향력 행사가 투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3) 政治信賴感

중·고등학생들의 정치신뢰감에 대한 정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부 시정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 정부 지도자의 청렴결백에 대한 신뢰, 정부의 국민에 대한 관심,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믿음을 묻는 4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각 문항에 대한 반응 결과는 < 표 6 >과 같다.

政府 施政의 正當性에 대한 정치신뢰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은 정부가 얼마나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한 반응 결과를 보면 ‘대단히 많이’가 0%, ‘많이’는 6.7%, ‘조금’이 50.5%, ‘대단히 조금’은 31.2%, ‘전혀 안함’이 11.6%로 정부 시정

< 표 6 > 政治信賴感에 대한 全體 反應 結果

문항	N	M	SD	반 응 구 분 (%)					계
				대단히 많이	많이	조금	대단히 조금	전혀안함	
15	1120	2.52	0.79	0 (0.0)	75 (6.7)	566 (50.5)	349 (31.2)	130 (11.6)	100
16	1120	2.13	0.79	1 (0.1)	25 (2.2)	356 (31.8)	481 (42.9)	257 (22.9)	100
17	1120	2.38	0.83	3 (0.3)	61 (5.4)	484 (43.2)	387 (34.6)	185 (16.5)	100
18	1120	2.50	0.84	6 (0.5)	90 (8.0)	506 (45.2)	371 (33.1)	147 (13.1)	100

의 정당성에 관해서는 정치신뢰가 낮은 정치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 지도자의 청렴결백에 대한 정치 신뢰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은 정부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부패하지 않고 깨끗하다고 얼마나 믿을 수 있으십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이 문항의 반응 결과는 ‘대단히 많이’가 0.1%, ‘많이’는 2.2%, ‘조금’이 31.8%, ‘대단히 조금’은 42.9%, ‘전혀 안함’이 22.9%로 부정적인 반응이 65.8%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 지도자들이 청렴결백하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정치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국민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고, 국민들의 생각을 충분히 받아들인다고 믿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한 반응 결과는 ‘대단히 많이’가 0.3%, ‘많이’는 5.4%, ‘조금’이 43.2%, ‘대단히 조금’이 34.6%, ‘전혀 안함’이 16.5%로 부정적인 정치 태도를 보이고 있어 대체로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그 과정이 국민의 이익과 여론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에 대한 믿음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정부가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일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라고 문항을 제시한 반응 결과는 ‘대단히 많이’가 0.5%, ‘많이’는 8.0%, ‘조금’은 45.2%, ‘대단히 조금’이 33.1%, ‘전혀 안함’이 13.1%로 부정적인 정치 태도를 나타내고 있어 정부의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에 대해 정치신뢰가 비교적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4) 政治參與感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정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

여 정치 문제에 대한 토론에의 참가 정도,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치 문제에 관심 표명, 정치 견해 차이로 인한 의견 대립의 경험을 묻는 4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각 문항에 대한 반응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政治參與感에 대한 全體 反應 結果

문항	N	M	SD	반응 구분 (%)					계
				대단히 많이	많이	조금	대단히 조금	전혀안함	
19	1120	2.54	1.06	42 (3.8)	146 (13.0)	412 (36.8)	299 (26.7)	221 (19.7)	100
20	1120	2.26	1.00	21 (1.9)	107 (9.6)	299 (26.7)	403 (36.0)	290 (25.9)	100
21	1120	2.92	0.95	52 (4.6)	236 (21.1)	492 (43.9)	260 (23.2)	80 (7.1)	100
22	1120	1.65	1.00	24 (2.1)	41 (3.7)	161 (14.4)	189 (16.9)	705 (62.9)	100

정치 문제에 대한 토론에의 참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친구들과 정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어느 정도 참가합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이 문항에 대한 반응 결과를 보면 ‘대단히 많이’가 3.8%, ‘많이’는 13.0%, ‘조금’은 36.8%, ‘대단히 조금’은 26.7%, ‘전혀 안함’이 19.7%로 정치 문제에 대한 친구들과의 토론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러분의 어른들과 얼마나 자주 정치 문제를 이야기하고 여쭙어 봅니까?”라는 문항의 반응 결과는 ‘대단히 많이’가 1.9%, ‘많이’는 9.6%, ‘조금’은 26.7%, ‘대단히 조금’은 36%, ‘전혀 안함’은 25.9%로 긍정적인 반응이 11.5%, 부정적인 반응이 61.9%를 나타내어 대단히 소극적인 정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치 문제의 관심도를 측정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은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등에서 세계의 정치 형편이나 나라 안

의 정치 형편에 대해 어느 정도 열심히 듣고 봅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그 반응 결과는 '대단히 많이'는 4.6%, '많이'가 21.1%, '조금'이 43.9%, '대단히 조금'은 23.2%, '전혀 안함'이 7.1%로 언론 매체를 통한 정치 문제에도 관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 견해 차이로 인한 의견 충돌의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느 정당이나 정치인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일로 인하여 친구들과 의견 대립으로 다툰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 반응 결과를 보면 '대단히 많이'는 2.1%, '많이'가 3.7%, '조금'은 14.4%, '대단히 조금'은 16.9%, '전혀 안함'은 62.9%로 정당이나 정치인 선호도 문제를 갖고 친구들과 의견 대립 경험이 거의 없다는 반응이 79.8%를 보이고 있어, 자신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정치인이나 정당 문제를 놓고 친구들과 의견 대립 경험이 거의 없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2. 背景變因別에 따른 政治態度

배경 변인별에 따른 정치 태도의 분석은 평균(M)을 가지고 하였으며 시민의무감,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정치참여감은 평균 점수가 중간 점수보다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해석하였다.

(각 정치 태도를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므로 중간 점수는 12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1) 學年別에 따른 政治態度의 차이

학년에 따른 정치 태도의 발달은 <표 8>을 보면 알 수 있다. <표 8>에 의하면 시민의무감은 중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순으로 중학생들은 학년이 높을수록 시민이 국가나 정부에 대해 해야 할 法的 義務

〈표 8〉 學年別에 따른 政治 態度的 차이

정치 태도	학년	N	M	SD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변량 추정치	F	P
시민의무감	중 1	183	17.20	2.33	집단간	47.38	5	9.48	2.12	0.0603
	2	192	17.36	2.36						
	3	189	17.57	2.26						
	고 1	183	17.77	1.81	집단내	4969.84	1114	4.46		
	2	181	17.67	1.98	전체	5017.22	1119			
	3	192	17.71	1.84						
정치 효능감	중 1	183	15.31	2.79	집단간	48.24	5	9.65	1.41	0.2163
	2	192	15.44	2.66						
	3	189	15.59	2.68						
	고 1	183	15.31	2.58	집단내	7598.21	1114	6.82		
	2	181	14.97	2.32	전체	7646.44	1119			
	3	192	15.57	2.61						
정치 신뢰감	중 1	183	9.99	2.64	집단간	237.45	5	47.49	7.40	0.0000
	2	192	9.83	2.47						
	3	189	8.58	2.72						
	고 1	183	9.45	2.48	집단내	7142.75	1114	6.41		
	2	181	9.70	2.37	전체	7380.20	1119			
	3	192	9.70	2.49						
정치 참여감	중 1	183	8.22	3.19	집단간	477.46	5	95.49	11.00	0.0000
	2	192	9.02	2.91						
	3	189	9.30	3.06						
	고 1	183	9.56	2.64	집단내	9664.27	1114	8.68		
	2	181	10.27	2.92	전체	10141.73	1119			
	3	192	9.92	2.91						

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등학생은 1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는 3학년, 2학년 순으로 나타나 일관성이 없으며 유의 있는 차

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치효능감은 중학생은 1학년, 2학년, 3학년 순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긍정적인 정치효능을 높게 나타내어 시민의 정치적 행위가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주는 믿음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고등학생들은 2학년, 1학년, 3학년 순으로 나타나 일관성이 없으며 의의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치신뢰감은 중학생은 3학년, 2학년, 1학년 순이며, 고등학생은 1학년, 2학년, 3학년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중학생은 저학년, 고등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 지도자 및 공무원의 청렴결백에 대한 믿음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치신뢰감은 $P < 0.001$ 의 수준에서 의의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정치참여감은 중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순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정치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고 있고, $P < 0.001$ 의 수준에서 의의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등학생은 1학년, 3학년, 2학년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2학년 때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일관성이 없다.

2) 居住地別에 따른 政治態度의 차이

학생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으로 구분하여 이들 간에 정치 태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 표 9 >에 따르면 학생의 거주지가 남제주군, 북제주군,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으로 갈수록 학생들은 선거시의 투표, 법과 규칙의 준수 등에 대한 의무감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정치효능은 서귀포시, 남제주군, 제주시, 북제주군 지역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 높은 정치적 정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간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9〉 居住地別에 따른 政治 態度의 차이

정치 태도	거주지	N	M	SD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변량 추정치	F	P
시 민 의무감	제 주 시	322	17.59	2.15	집단간 집단내 전 체	14.82	3	4.94	1.10	0.3471
	서귀포시	244	17.73	1.99		4987.24	1113	4.48		
	북제주군	252	17.51	2.16		5002.06	1116			
	남제주군	299	17.41	2.14						
정 치 효능감	제 주 시	322	15.45	2.57	집단간 집단내 전 체	41.76	3	13.92	2.04	0.1069
	서귀포시	244	15.09	2.73		7603.74	1113	6.83		
	북제주군	252	15.63	2.63		7645.50	1116			
	남제주군	299	15.27	2.54						
정 치 신뢰감	제 주 시	322	9.50	2.63	집단간 집단내 전 체	80.39	3	26.80	4.11	0.0065
	서귀포시	244	9.07	2.54		7261.80	1113	6.52		
	북제주군	252	9.79	2.34		7342.18	1116			
	남제주군	299	9.73	2.65						
정 치 참여감	제 주 시	322	9.59	2.89	집단간 집단내 전 체	112.64	3	37.55	4.17	0.0060
	서귀포시	244	9.80	3.18		10017.14	1113	9.00		
	북제주군	252	8.98	3.05		10129.77	1116			
	남제주군	299	9.16	2.92						

[** P < 0.01]

정부나 정부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는 서귀포시, 제주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지역 순으로 시 지역보다 군 지역이 높고,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정치참여감은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북제주군, 남제주군,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 순으로 군 지역보다 시 지역이 높다.

3) 父母의 年齡別에 따른 政治 態度의 차이

부모의 연령별에 의한 중·고등학생들의 정치 태도의 차이는 <표 10>과 같다.

표 10. 父母의 年齡別에 따른 政治 態度的 차이

정치 태도	연령별	N	M	SD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변량 추정치	F	P
시민의무감	30대	77	16.99	2.31	집단간 집단내 전 체	28.63	3	9.54	2.14	0.0941
	40대	746	17.57	2.08		4988.58	1116	4.47		
	50대	279	17.67	2.15		5017.21	1119			
	60대	18	17.44	2.26						
정치효능감	30대	77	15.39	2.86	집단간 집단내 전 체	2.44	3	0.81	0.12	0.9491
	40대	746	15.36	2.61		7644.01	1116	6.85		
	50대	279	15.41	2.55		7646.44	1119			
	60대	18	15.06	2.88						
정치신뢰감	30대	77	9.17	2.46	집단간 집단내 전 체	18.45	3	6.15	0.93	0.4245
	40대	746	9.61	2.55		7361.75	1116	6.60		
	50대	279	9.48	2.65		7380.20	1119			
	60대	18	9.11	2.27						
정치참여감	30대	77	8.87	2.99	집단간 집단내 전 체	119.43	3	39.81	4.43	0.0042
	40대	746	9.22	2.98		10022.30	1116	8.98		
	50대	279	9.90	3.06		10141.73	1119			
	60대	18	10.00	2.85						

[** P < 0.01]

시민의무감에 있어서는 부모의 연령이 30대, 60대, 40대, 50대의 순서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선거시의 투표, 법률과 규칙 준수 등에서 시민이 국가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 취해야 할 태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효능감은 60대, 40대, 30대, 50대의 순서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영향력 행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신뢰감은 60대, 30대, 50대, 40대순으로 나타나서 부모의 연령이 40대인 학생에게서 정부 지도자나 공무원에 대한 믿음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참여감은 부모의 연령이 30대, 40대, 50대, 60대의 순으로 나타나 부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4) 父母의 學力別에 따른 政治態도의 차이

부모의 학력별에 따른 중·고등학생의 정치 태도의 차이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 따르면 시민의무감은 부모의 학력이 중졸인 학생, 국졸이하인 학생, 고졸인 학생, 대졸 이상인 학생 순으로 반응이 나타나 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학생에게서 선거 때에 투표 참여나 법률이나 규칙 준수 및 공무원에게 의사표시에 대한 시민의무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효능감은 부모의 학력이 중졸인 학생, 대졸 이상인

<표 11> 父母의 學力別에 따른 政治 態도의 차이

정치 태도	학력별	N	M	SD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변량 추정치	F	P
시민의무감	국졸이하	143	17.49	2.18	집단간 집단내 전 체	21.38 4987.70 5009.08	3 1114 1117	7.13 4.48	1.59	0.1896
	중졸	327	17.37	2.26						
	고졸	537	17.62	2.02						
	대졸이상	111	17.81	2.08						
정치효능감	국졸이하	143	15.66	2.27	집단간 집단내 전 체	50.14 7591.77 7641.91	3 1114 1117	16.71 6.81	2.45	0.0619
	중졸	327	15.09	2.69						
	고졸	537	15.50	2.57						
	대졸이상	111	15.18	2.99						
정치신뢰감	국졸이하	143	10.00	2.39	집단간 집단내 전 체	71.11 7300.89 7371.10	3 1114 1117	23.70 6.55	3.62	0.0128
	중졸	327	9.72	2.62						
	고졸	537	9.31	2.51						
	대졸이상	111	9.50	2.82						
정치참여감	국졸이하	143	9.36	3.15	집단간 집단내 전 체	153.86 9985.58 10139.44	3 1114 1117	51.29 8.96	5.72	0.0007
	중졸	327	9.12	2.85						
	고졸	537	9.32	3.04						
	대졸이상	111	10.46	2.98						

[* P < 0.05 *** P < 0.001]

학생, 고졸인 학생, 국졸 이하인 학생 순서로 정부 활동에 대한 국민의 영향력 행사나 시민 각 개인의 정치적 행위가 정치적, 사회적인 변화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신뢰감은 부모의 학력이 고졸인 학생, 대졸 이상인 학생, 중졸인 학생, 국졸 이하인 학생 순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믿음이나 정치지도자 및 공무원의 청렴결백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P < 0.05$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치참여감은 부모의 학력이 중졸인 학생, 고졸인 학생, 국졸 이하인 학생, 대졸 이상인 학생의 순서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P < 0.001$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5) 父母의 職業別에 따른 政治態度의 차이

부모의 직업별에 따른 중·고등학생들의 정치 태도 차이는 <표 12>와 같다.

<표12>에서 보면 시민의무감,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정치참여감은 통계적으로 유의 수준의 유의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시민의 무감에 있어서는 부모의 직업이 기타, 회사원, 공업·건축업 등 2차 산업, 공무원·교사, 농수산업 등 1차 산업, 상업·서비스업 등 3차 산업 순으로 시민으로서 국가나 정부에 대해 해야 할 본분에 관한 법적 의무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효능감에 있어서는 부모의 직업이 기타, 공무원·교사, 회사원, 공업·건축업 등 2차 산업, 농수산업 등 1차 산업, 상업·서비스업 등 3차 산업 순서로 개인의 정치적 행동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신뢰감에 있어서는 부모의 직업이 회사원, 상업, 서비스업 등 3차 산업, 공무원·교사, 농수산업 등 1차 산업, 공업·건축업 등 2차 산업, 기타의 순

(표 12) 父母의 職業別에 따른 政治 態度的 차이

정치 태도	직업별	N	M	SD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변량 추정치	F	P
시민 의무감	농수산업 등 1차산업	511	17.58	2.06	집단간	26.72	5	5.34	1.19	0.3105
	공업·건축업 등 2차산업	122	17.53	2.19						
	상업·서비스업 등 3차산업	247	17.70	2.10	집단내	4990.50	1114	4.48		
	회사원	63	17.25	2.68						
	공무원·교사	104	17.56	1.88	전체	5017.21	1119			
	기타	73	17.10	2.26						
정치 효능감	농수산업 등 1차산업	511	15.48	2.59	집단간	52.00	5	10.40	1.53	0.1789
	공업·건축업 등 2차산업	122	15.28	2.71						
	상업·서비스업 등 3차산업	247	15.53	2.48	집단내	7594.45	1114	6.82		
	회사원	63	15.19	2.74						
	공무원·교사	104	15.10	2.66	전체	7646.45	1119			
	기타	73	14.74	2.85						
정치 신뢰감	농수산업 등 1차산업	511	9.57	2.52	집단간	60.63	5	12.13	1.85	0.1013
	공업·건축업 등 2차산업	122	9.80	2.53						
	상업·서비스업 등 3차산업	247	9.31	2.52	집단내	7319.56	1114	6.57		
	회사원	63	9.02	2.69						
	공무원·교사	104	9.56	2.61	전체	7380.20	1119			
	기타	73	10.08	2.87						
정치 참여감	농수산업 등 1차산업	511	9.27	3.01	집단간	22.42	5	4.48	1.85	0.7812
	공업·건축업 등 2차산업	122	9.37	3.13						
	상업·서비스업 등 3차산업	247	9.61	2.96	집단내	10119.31	1114	9.08		
	회사원	63	9.46	3.04						
	공무원·교사	104	9.46	2.68	전체	10141.73	1119			
	기타	73	9.19	3.46						

서로 정부의 정책이나 지도자 및 공무원의 청렴결백에 대한 믿음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참여감은 부모의 직업이 기타, 농수산업 등 1차 산업, 공업·건축업 등 2차 산업, 회사원, 공무원·교사, 상업·서비스업 등 3차 산업 순으로 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6) 家庭의 生活程度別에 따른 政治態도의 차이

가정의 생활 정도에 따른 정치 태도의 차이를 <표 13>과 같이 제시 하였다.

<표 13>에 의하면 시민의무감,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정치참여감에 있어서는 유의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시민의무감은 가정의 생활 정도가 下인 학생이 가장 높게 반응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中, 上으로 낮아지고 있어 생활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선거 때의 투표 참여나 법률과 규칙 준수 등의 시민으로서의 법적 의무감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법률이나 규칙 준수 등의 시민의무감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효능감은 생활 정도가 下인 학생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이 上, 中 순

<표 13> 家庭의 生活 程度別에 따른 政治 態도의 차이

정치 태도	생활 정도	N	M	SD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변량 추정치	F	P
시민의무감	상	34	17.53	2.19	집단간	0.29	2	0.15	0.03	0.9680
	중	1034	17.55	2.11	집단내	5014.48	1116	4.49		
	하	51	17.63	2.33	전체	5014.77	1118			
정치효능감	상	34	15.35	2.88	집단간	15.38	2	7.69	1.13	0.3248
	중	1034	15.34	2.62	집단내	7624.12	1116	6.83		
	하	51	15.90	2.34	전체	7639.50	1118			
정치신뢰감	상	34	9.88	2.79	집단간	14.04	2	7.02	1.06	0.3455
	중	1034	9.55	2.52	집단내	7364.03	1116	6.60		
	하	51	9.10	3.21	전체	7378.06	1118			
정치참여감	상	34	9.85	3.26	집단간	45.38	2	22.69	2.51	0.0815
	중	1034	9.32	2.97	집단내	10074.99	1116	9.03		
	하	51	10.20	3.51	전체	10120.37	1118			

[** P < 0.01]

으로 낮아지고 있다.

정치신뢰감은 생활 정도가 上인 학생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남으로써 경제 수준이 높은 가정일수록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 지도자 및 공무원의 청렴결백에 대한 믿음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이 中, 下 순으로 낮아지고 있다. 정치참여감은 생활 정도가 下인 학생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이 上, 中 순으로 정치에의 참여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V. 要約 및 提言

1. 要約

本研究는 제주도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정치 태도는 社會·經濟的 背景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떠한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는지를 밝혀 보려는 목적에 따라 이루어 졌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중·고등학교 각각 1개교를 선정하여 각 학교별로 한 학년에 한 학급씩 3개 학급에서 1,120명을 표집 하여 이를 대상으로 學年別, 學生의 居住地別, 父母의 年齡別, 父母의 學力別, 父母의 職業別, 家庭의 生活 程度別로 시민의무감,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정치참여감 등의 정치 태도를 측정하였다.

이에 따라 나타난 결과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학년별에 따른 조사 결과는 시민의무감에 있어서 중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민이 정부나 국가에 대해 해야 할 법적 의무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등학생은 일관성이 없으며 의의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치효능감은 중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긍정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시민의 정치적 행위가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주는 믿음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고등학생은 일관성이 없다. 정치신뢰감은 중학생은 저학년, 고등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 지도자 및 공무원이 청렴결백에 대한 믿음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P < 0.001$ 의 수준에서 의의 있는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정치참여감은 중학생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정치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고 있고, $P < 0.001$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고등학생은 일관성이 없다.

2) 학생 거주지별에 따른 조사 결과는 시민의무감은 군 지역보다 시 지역으로 갈수록 학생들은 선거시의 투표, 법과 규칙의 준수 등에 대한 의무감을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효능은 전체적으로 높은 정치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간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나 정부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는 시 지역보다 군 지역의 학생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정치참여감은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군 지역보다 시 지역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부모의 연령별에 따른 조사 결과는 정치 참여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P < 0.01$), 부모의 연령이 많은 학생일수록 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4) 부모의 학력별에 따른 조사 결과는 시민의무감은 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학생에게서 선거 때에 투표 참여나 규칙 준수 및 공무원에게 의사표시에 대한 의무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효능감은 부모의 학력이 국졸 이하인 학생에게서 정부 활동에 대한 국민의 영향력 행사나 시민 각 개인의 정치적 행위가 정치적·사회적인 변화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신뢰감은 부모의 학력이 국졸 이하인 학생에게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믿음이나 정치 지도자 및 공무원의 청렴결백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P < 0.05$ 의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치참여감은 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학생에게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P < 0.001$ 의 수

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5) 부모의 직업별에 따른 조사 결과는 시민의무감,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정치참여감 모두 유의 수준의 유의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6) 가정의 생활 정도별에 따른 조사 결과는 시민의무감은 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선거 때의 투표 참여나 법률과 규칙 준수 등의 시민으로서의 법적 의무감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효능감은 생활 정도가 낮은 학생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신뢰감은 생활 수준이 높은 가정일수록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 지도자 및 공무원이 청렴 결백에 대한 믿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참여감은 생활 정도가 낮은 학생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提 言

1) 중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정치신뢰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가정·사회 현실·정치 현상의 영향 그리고 학생들이 지적 수준과 비판 능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사회·정부의 노력과 아울러 사회과 교육을 통해서 정치신뢰를 높여야 하겠다.

2)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학급 활동·클럽 활동·교실 내에서의 의사 결정에의 참여 등에 대한 교육적인 노력과 지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3) 정치 태도는 학교 환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음으로 학생들이 올바른 政治的 定向을 가질 수 있도록 민주적인 學級 雰圍氣 조성과 合理的인 思考를 길러 주기 위하여 注入式 위주의 授業에서 學生中心의 授業 體系로 개선해 나가야 하며, 또한 교사 자신도 민주적인 태도

를 지녀야 할 것이다.

4) 제주도 중·고등학생들의 정치 태도에 관한 연구가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결과를 사회과 교사나 전문가 및 학부모들도 최대한 활용하여 효과적인 정치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학교는 정치 사회화의 動因으로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공식적 교육의 면 외에는 거의 연구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動因에 대한 좀더 세분화된 연구가 이루어져야겠고, 그 연구가 미치는 효과에서도 단편적인 면보다는 통계적으로 좀더 전문화된 방법을 사용하여 動因간이 관련성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한국 문헌

- 金在泳(1982), 『政治社會化論』(서울: 大王社).
- 李克燦(1984), 『政治學』(서울: 學文社).
- 李大潤(1979), 『新政治學 概念』(서울: 學文社).
- (1980), 『新政治學 概論』(서울: 學文社).
- 朴容憲(1983), “政治社會화와 政治文化,” 國民倫理學會編, 政治教育
(서울: 螢雪出版社).
- 培英社(1965), 『教育心理學辭典』.
- 劉鐘海(1973), “韓國 中等學校 學生들의 社會化過程에 관한 研究,” 省
谷論叢 第 4 輯.
- 鄭世九(1974), “初·中學校 學生들의 政治態도와 發達 : 政治信賴와
政治效能,” 『韓國教育』(서울: 韓國教育開發院).
- 韓興壽(1972), “民主政治體제의 土着化 教育,” 社會科學論叢 第 5 輯
(서울: 延世大, 社會科學研究所).
- 威義英(1972), “政治意識과 民主主義,” 『社會科學論輯』 第 5 輯 (서울
: 延世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1. 서 양 문 헌

<단 행 본>

Almond, Gabriel A. and Coleman, James S. (1965), *Educa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 and Powell, G. Bingham (1966), *Comparative Politics A Development Approach* (Boston:Little, Brown and co).

————— and Verba, Sidney(1963), *The Civic Cultu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Best, James J. (1973), *Public Opinion*, the Dorsey Press.

Coleman, J. S. (1965), *Educational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Dawson, Richard E. and Others(1977), *Political Socialization* (N.Y:Little, Brawn and Co).

—————, Prewitt, Kenneth and Dawson, S. (1977), *Political Socialization* (N.Y:Little Brown & co).

Dowse, Robert E. and Hughes, John A. (1972), *Political Sociology* (London:John Wiley Sons).

Eysenck, H. J. (1954), *The Psychology of Politics* (London:Routledge and Kegan paul).

Hyman, H. H. (1959), *Political Socialization*, (Glencoe, Illionis: The Free Press).

- (1965), *Political Socialization*, (New York:The Free Press).
- Langton(1969), *Political Soci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Press).
- Massialas, Byron G. (1972), *Political Youth, Traditional Schools* (Englewood Cliffs New Jersay:prenyice-Hall, Inc).
- Pye and Verba(eds)(1969), *Political Culture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keach, Milton(1968), *Belief, Attiude and Values* (San Fransisco:Jossey-Bass).
- Thomas, W. I. and Znanieck(1981), *The Polish Pleasant in the Europe and America Vol.1.*

< 논 문 >

- Anderson, C.A. & Fisher,S. (1967), "The Curriculum as an Instrument for Inculcating Attitudes and Values," Comparative Education Center, University of Chicago, Unpublished Manuscript.
- Beer, Samuel H. (1958), "The Analysis of political System," *Pattern of Government*, ed.by Samuel H.Beer and Adam B. Ulam (New York:Random).
- Campbell, D. T., "The Indirect Assessment of Social Attitude," *Psychological Bulletin*, No.47.
- Easton, David and Dennis, Jack (1967), "The Child's Acquisition of Regime Norms:political Effic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61.

- Greenstein, Fred I. (1968), "Political Socialization,"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14.
- Iblatt, D. Z. (1965), "High School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Political Socialization," i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CCCLXI, September.
- Massialas, Byron G. (1969), "Citizenship and Political Socialization," *Encyclopedia of Educational Research*.
- Paige, Jeffery M. (1971), "Political Oorientation and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36. Oct.
- Pye, Lucian W. (1962), "Politics, Personality and Nation-Building," Yale University Press.
- Robinson, John P., et al(1968), "Measures of Political Attitude," Ann Arbar, Survey Research Center, Institute for Research, the University of Michigan.
- Rokeach, Milton (1968-69), "The Role of Values in Public Opinion Research," *Public Opinion Quarterly*, Vol.32.
- Sigel, Robert (1965), "Assumption about the Learning of Political Values," i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361, (Sept).

〈Summary〉

A Study on Political Socialization of Secondary
School Girls' Students in Cheju-Do

Han, Jeong-Ho

Social Studie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Hang-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political attitudes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Cheju and to illuminate the difference of political attitudes according to grades and socio-economic backgrounds.

For this purpose a question was designed and presented to 1120 secondary school in Cheju-Do. Items of it were citizenship duty,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trus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selected from a pool of items that had been used in most political socialization research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lately.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by using such computing methods a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3.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o clarify the difference of political attitudes according to grades and socio-economic groups, two method of statistical analysis was used, i.e., F-test.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follows.

1) In view of grade, the higher the grade is, the stronger political trust in government policy and the integrity of officials they have in senior highschool students. But it is reverse in junior highschool students. In political participation, junior highschool students have stronger political participation in proportion to their grade. No significant difference can be found in senior highschool students

2) In view of residential district, the students in south and north Cheju districts have stronger political trust in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leaders than those in the cities. It is reverse political participation.

3) In view of parents' age, political attitudes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olitical participation. Students with older parents show stronger participation.

4) In view of parents' educational background, students with parents having only elementary school education have stronger political trust in political policies and the integrity of officials and political leaders. Students with parents having college education have stronger political participation and interest. Littl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olitical attitudes can be found according to the standard of living. Therefore educational efforts and instructions are focussed on participating the students in making decisions in club

and class activities, to enhance students' positive and active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politics.

Creating democratic class atmosphere is necessary for the students' right political judgment. It is important to improve cramming teaching into student-centered creative teaching. Teachers must cultivate democratic attitudes.

질문지

연구자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질문지는 정치 태도에 대한 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본 연구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결코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한 내용은 모두 숫자로 통계 처리되므로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나 성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니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한 정 호

◎ 다음 사항 중에서 해당된 번호에 0 표를 하십시오.

- 응답자의 학년 중: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고: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 응답자의 거주지 : ① 제주시 ② 서귀포시 ③ 북제주군 ④ 남제주군
- 부모님의 연령은 ?
① 30대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 부모님의 학력은 ? (중퇴는 졸업에 넣어 주십시오)
① 국졸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이상
- 부모님의 직업은 ? (부모의 직업이 다를 때는 아버지를 기준으로 한다.)
① 농림, 수산업, 임업, 목축업 등 1차 산업
② 공업, 건설업, 토목 등 2차 산업
③ 상업 및 서비스업 등 3차 산업
④ 회사원
⑤ 공무원 (교육 공무원 포함)
⑥ 기 타
- 응답자의 가정 생활 정도는 ?
① 상 ② 중 ③ 하

< 시 민 의 무 감 >

절 찬 이 대 상 이 다 찬 이 성 다 찬 성 도 반 대 이 다 반 이 대 대 절 찬 이 대 대

- 7.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선거에서 질 것이 생각될 때 투표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
- 8.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한 분쯤은 투표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
- 9. 사람들은 나라의 정치 형편을 잘 모르고 있어도 좋다는 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
- 10. 사람들은 정치를 말아하는 정치인이나 나라 살림을 말아보는 공무원에게 자기의 의견을 표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

< 정 치 효 능 >

- 11. 때때로 정치나 정부는 너무나 복잡해서 나 같은 학생은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겠다라는 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
- 12. 국민이 무엇이든 하든지 정부가 하는 일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날씨와 같아서 국민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
- 13. 내가 어른이 된 다음에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별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는 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
- 14. 국민이 정부가 하는 일에 간섭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투표하는 일이다라는 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

◎ 다음 문항들을 읽고 5개의 보기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에
v표를 해주십시오.

< 정 치 신 려 >

대단히
많 이 많 이 조금 조금 전 혀
안 함

15. 여러분은 정부가 얼마나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

--	--	--	--	--

16. 여러분은 정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부패하지 않고 깨끗하다고 얼마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

--	--	--	--	--

17. 여러분은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때 얼마나 국민에게 주의를 기울인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8. 여러분은 정부가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일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

--	--	--	--	--

< 정 치 참 여 >

19. 여러분은 친구들과 정치문제를 이야기 할때 어느 정도 참가하십니까 ?

--	--	--	--	--

20. 여러분은 어른들과 얼마나 정치문제를 이야기하고 여쭙어 봅니까 ?

--	--	--	--	--

21. 여러분은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등에서 나라안의 정치 형편이나 세계의 정치 형편에 대해 어느 정도 열심히 듣고 봅니까 ?

--	--	--	--	--

22. 여러분은 어느 정당이나 정치인을 좋아 하거나 싫어하는 일로 인해 친구들과 의견 대립으로 다툰 적이 있습니까 ?

--	--	--	--	--